

개체의 상대적 위치와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

- 독일어와 한국어의 공간표현을 중심으로 -

구명철(서울대)

1. 들어가는 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공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체의 위치는 x, y 좌표상의 한 지점으로 표현되거나, 해당 개체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개체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 x, y 축의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본질적이지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설령 매 순간 x, y 축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대화에서 좌표상의 위치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어떤 개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제3의 개체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개체의 위치를 제3의 개체를 끌어들이어 나타낼 때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마주보이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아있는 학생을 가리켜, 화자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der Schüler rechts neben dem Lehrer*나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생님을 기준으로 하여 선생님 왼쪽에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다.

두 개체가 공간에서 존재하는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언어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탄도체 Trajector’와 ‘지표 Landmark’(Fauconnier(1994), Lee(2001)) 또는 ‘테마 Thema’와 ‘관계점 Relatum’(Herweg(1989), Herrmann(1990), Klein(1991))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¹⁾ 이들은 모두 개체의 위치를 논의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상대적인 기준이 되는 개체(관계점 또는 지표)만을 근거로 어떤 개체(테마 또는 탄도체)의 위치를 묘사할 경우, 동일한 현상이 *der Schüler rechts neben dem Lehrer*/선생님 오른쪽

* 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이에 대한 논의는 신수승(2003) 참조.

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 왼쪽에 있는 학생처럼 서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즉 개체가 이동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할 때, A가 B에게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을 할 경우, 독일어에서는 한국어에서와 달리 *gehen*을 쓰지 않고 *kommen*을 사용한다(예, *Wo treffen wir uns? - Ich komme zu dir.*). 또한 두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가려고 하는 곳에 함께 가자고 권할 때에도 *gehen*을 쓰지 않고 *kommen*을 사용한다(예, *Ich gehe jetzt ins Kino. Kommst du mit? - Ja, ich komme mit.*). 이때 화자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ehen* 동사와 *kommen* 동사가 번갈아 사용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테마와 관계점 만으로는 동일한 현상에 대한 *gehen*과 *kommen*의 쓰임, 나아가서 독일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설명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Klein(1991), Herrmann(1990), Herweg(1989) 등에서 테마 및 관계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Origo’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관찰점 *Betrachtungspunk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독일어와 한국어의 공간관계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후좌우에 대한 독일어와 한국어의 표현을 비롯하여, 한국어에서 *가다*가 사용되는 경우 독일어에서 *kommen*이 사용되는 현상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2. 공간표현에 관련된 개념들

2.1. 테마, 관계점, 관찰점

개체의 위치는 항상 다른 개체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마련이므로, 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은 적어도 또 다른 개체의 위치를 전제로 한다. 이것들을 Herweg(1989), Herrmann(1990), Klein(1990) 등은 각각 ‘테마’와 ‘관계점’이라고 명명하였다. 테마와 관계점 대신 Fauconnier(1994)나 Lee(2001)처럼 ‘탄도

체'와 '지표'라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그런데, Klein(1990)에 따르면 공간표현은 공간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다. 즉 공간에 대한 해석은 감각기관과 사유능력을 통한 인간의 인지방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²⁾ 예를 들어, 마주보이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아있는 학생을 가리켜 독일어 화자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der Schüler rechts neben dem Lehrer*라고 말하지만, 한국어 화자는 *선생님 왼쪽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같은 위치에 앉아있는 학생을 가리키면서 *rechts* 또는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와 *왼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의 차이는 테마와 관계점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제3의 개념으로서 '기준점 Origo'이 필요하게 된다.³⁾ 이때 Origo의 번역으로 제시된 '기준점'은 두 개체 중에서 기준이 되는 개체로 오해될 소지가 있고, 그 기능상 테마와 관계점을 메타 차원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관찰점 Betrachtspunkt'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로 한다.

관찰점은 Baumgärtner & Wunderlich(1969)처럼 시제 문제를 다룰 때 '행위 시간 Aktzeit', '발화시간 Sprechzeit', '관찰시간 Betrachtzeit'이라는 세 가지 시간을 구분하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⁴⁾ 현재, 과거, 미래라는 단순 시제의 경우에는 행위시간과 발화시간만으로도 어떤 사건의 시간성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와 같은 복합시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물의 상대적인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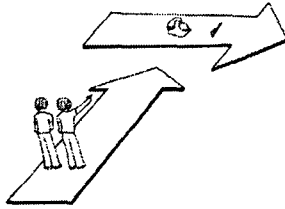
-
- 2) 언어에 대한 인간의 인지능력 및 인지과정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면서 '인지언어학' 또는 '인지문법'이라는 분야가 대두되었다(이에 대해서는 Langacker(1987, 1991)와 Schwarz(1996) 참조).
 - 3) Kessler(1999)도 관계점이 화자나 청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화자관점 Sprecherperspektive', '청자관점 Hörerperspektive' 그리고 '규범관점 kanonische Perspektive'으로 구분하였다. 개체의 위치에 대한 논의에서 '관점'을 중시한 연구로는 이외에도 Habel & von Stutterheim(2000)이 있음.
 - 4) 이에 대한 논의는 Elst & Habermann(1997:7장) 참조. Klein(1994)도 시제 문제를 다룰 때 '상황시간(TSit=time of situation)', '발화시간(TU=time of utterance)', '주제 시간(TT=topic time)'이라는 세 가지 시점을 구분하고 있다.

치를 표현할 때도 실제 개입되는 두 개체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관찰하는 개체 즉 관찰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2. 직시적 전략과 내재적 전략

두 개체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낼 때,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는 앞/뒤, 왼쪽/오른쪽, 위/아래로 구분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다. 여기서 사람, 자동차, 전화기처럼 앞/뒤, 왼쪽/오른쪽의 구분이 있는 개체는 관찰자와 관계없이 테마 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 즉 관계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펜의 위치를 “There’s your pen in front of the telephone.”이라고 할 수 있다.⁵⁾

(1)



이와 같이 관계점의 역할을 하는 개체 자체에 전후좌우의 구분 즉 ‘방향성 Orientierung’이 있는 경우, 관찰자의 관점이 개입되지 않고 테마 개체의 위치가 관계점과의 (전후좌우상하) 관계에 따라 표현되는 방식을 Hill(1982)은 ‘비 직시적 전략 non-deictic strategy’이라고 명명했다. 반면, 관계점의 역할을 하는 개체 자체에 방향성이 있더라도 화자나 청자가 관찰점이 되어 테마 개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은 ‘직시적 전략 deictic strategy’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화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무시된 채, “There’s your pen at the right of the telephone.”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경우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묘사된 것이므로 직시적 전략을 따른 것이다.⁶⁾ 그런데 동

5) 그림 (1)과 여기에 관련된 영어 표현은 Hill(1982: 25)에서 인용한 것임.

일한 언어 내에서도 직시적 전략과 비직시적 전략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모국어 화자들이 직시적 전략과 비직시적 전략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이 Hill(1982)의 다음과 같은 통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⁷⁾

(2)

Hausa 학생들		미국 학생들
Hausa로 반응한 경우	영어로 반응한 경우	40.0%
74.4%	63.3%	

위의 통계는 Hausa는 대체로 비직시적 즉 내재적 전략을 따르고, 영어는 직시적 전략을 따르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Grabowski & Weiß(1996)도 같은 맥락에서 ‘직시적 관계체계 deiktisches Bezugssystem’와 ‘내재적 관계체계 intrinsisches Bezugssystem’를 구분했고, Heine(1997: 3장)도 ‘직시 오리엔테이션’과 ‘개체직시 오리엔테이션’을 구분하였다.⁸⁾ 그런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관찰점이 되는 경우에도 Origo인 화자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Hill의 ‘비직시적 전략’이라는 개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Heine의 ‘개체직시’는 개념상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직시적 전략’, ‘직시적 오리엔테이션’, ‘직시적 관계체계’는 ‘직시적 전략’으로, ‘비직시적 전략’, ‘내재적 관계체계 intrinsisches Bezugssystem’, ‘개체직시 오리엔테이션’은 ‘내재적 전략’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6) 관계점의 역할을 하는 개체 자체에 방향성이 없는 경우에는 내재적 전략이 불가능하므로 직시적 전략만 가능하게 된다.

7) 여기서 백분율은 오른쪽과 같은 상황에서 비직시적 전략에 따라 반응한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Hill(1982: 34)에서 인용).



8) Heine는 이외에도 지표 오리엔테이션과 기본방위 오리엔테이션을 추가로 구분하고 있다.

3. 개체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

어떤 개체의 위치는 이 개체의 주변에 존재하는 개체와의 전후, 좌우 관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⁹⁾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후와 좌우 사이의 구분에는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독일어나 한국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놓고 전후, 좌우 중 어떤 차원의 표현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경우는 없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앞(쪽)’과 ‘뒤(쪽)’,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각각의 쌍에서 어떤 것을 양자택일할 것인가이다. 이수련(2001: 50)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개체가 “동물일 경우, 지각기관 특히 눈이 향하는 쪽”, 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차 비행기 따위)는 진행하는 쪽”, 개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건물, 가구 따위) 그것들이 사용될 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쪽”이 ‘앞’이 되고, 그 반대가 ‘뒤’가 된다. 이처럼, 각 언어에서 전후, 좌우를 나타내는 표현은 나름대로의 쓰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수집, 분류하고 이들의 용법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선 독일어와 한국어의 전후와 좌우를 나타내는 표현은 아래와 같이 분류 가능하다.

(3)

	방향	독일어	한국어
전후 관계	전	vor, vorn	앞(쪽), 앞(쪽)에
	후	hinter, hinten	뒤(쪽), 뒤(쪽)에
좌우 관계	좌	links (von/neben)	왼쪽, 왼쪽에
	우	rechts (von/neben)	오른쪽, 오른쪽에

그런데, 개체의 상대적 위치는 두 개체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앞서의 3차원 표현들 중 ‘문법적 빈자리 grammatische Leerstelle’ 2개를 갖는 것으로 제한된다(‘문법적 빈자리’에 대해서는 Lehmann(1991) 참조). 독일어에서는 전치사나 전치사를 포함하는 표현인 vor, hinter, links von/neben, rechts von/neben가 여기

9) 이때 두 개체 사이의 ‘상하 관계’도 고려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후, 좌우 관계에만 논의를 국한시키기로 한다.

에 해당하고, 한국어에서는 *앞(쪽)에*, *뒤(쪽)에*, *왼쪽에*, *오른쪽에*가 해당한다.

3.1.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독일어의 *vor*, *hinter*와 한국어의 *앞(쪽)에*, *뒤(쪽)에*가 있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상황을 토대로 한 독일어와 한국어의 표현을 비교, 검토하기로 하자. 우선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가 전후좌우의 구분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¹⁰⁾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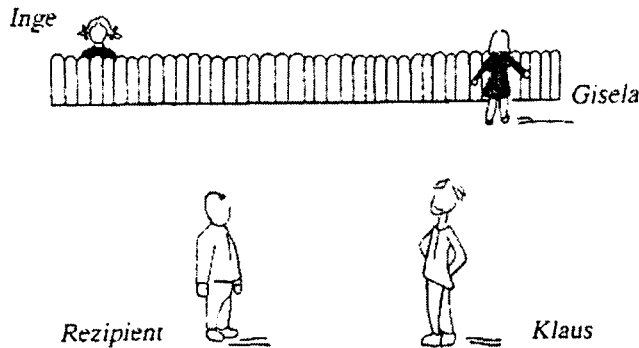


그림 (4)에서 화자인 Klaus가 “das Mädchen, das vor dem Zaun steht”라고 말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Gisela가 되고, “das Mädchen, das hinter dem Zaun steht”라고 할 때는 Inge를 의미한다. 즉 독일어에서 *vor*는 화자와 관계점 사이의 공간을, *hinter*는 관계점을 기준으로 한 화자의 반대편 공간을 나타낸다(Sichelschmidt(1989: 341) 참조). 결국 독일어에서는 화자가 관찰점이 되는데, 관계점을 기준으로 화자 즉 관찰점 방향에 있는 것은 ‘앞쪽’으로(*vor*) 파악하고, 관찰점과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것은 ‘뒤쪽’으로(*hinter*) 파악한다는 점에서 직시적인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10) 그림은 Sichelschmidt(1989: 341)에서 가져온 것임.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Klaus의 위치에서 한국어로 “올타리 앞에 있는 여자아이”라고 말할 경우, Gisela만이 아니라 Inge로도 이해될 수 있다(21:4).¹¹⁾ 반면 “올타리 뒤에 있는 여자아이”라는 표현에서 ‘여자아이’는 독일어에서처럼 거의 배타적으로 Inge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기로 하자.

(5) (a)



(b)



독일에서는 논란의 여지없이 첫 번째 그림에 묘사된 상황은 “Der Kugelschreiber liegt vor dem Telefon”으로, 두 번째 상황은 “Der Kugelschreiber liegt hinter dem Telefon”으로 표현됨으로써, 관계점을 기준으로 화자 즉 관찰점 방향에 있는 것은 vor가, 관찰점과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것은 hinter가 일관성 있게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도 첫 번째 그림으로 묘사된 상황은 “전화기 앞(쪽)에 볼펜이 있다”로 표현됨으로써 독일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으로 묘사된 상황에서는 모국어화자 사이에 “전화기 뒤(쪽)에 볼펜이 있다”와 “전화기 앞(쪽)에 볼펜이 있다”가 12대 13으로 선택됨으로써 관찰점의 위치가 화자가 아니라 관계점인 전화기에 놓일 가능성이 다소 높다.¹²⁾

결국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의 방향성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 한국어의 뒤는 독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계점을 기준으로 화자의 반대편 공간을 나타내지만, 앞은 독일어의 vor처럼 관계점과 화자 사이의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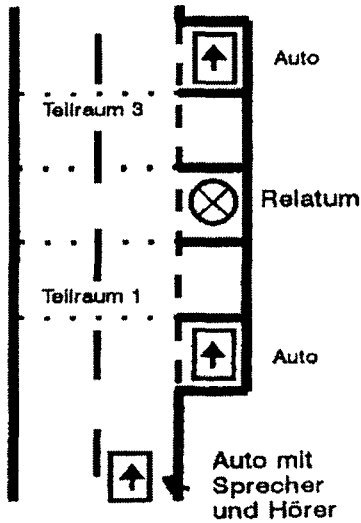
11) 본 논문에서 설문조사는 학부 및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단, 그림 (8)의 경우에는 26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12) 이때 “전화기 옆에 볼펜이 있다”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논의를 앞, 뒤 관계로만 국한시키기로 한다.

않는다고 하겠다. 한국어 앞의 경우 화자뿐만 아니라 관계점도 기준(= 관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어 화자는 지점 1(= Teilraum 1)에 대해 “hinter dem gelben Käfer”보다 “vor dem gelben Käfer”를 23대 24라는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고, 지점 3(= Teilraum 3)은 15대 17로 “vor dem gelben Käfer”보다 “hinter dem gelben Käfer”를 선호한다.¹³⁾

(6)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지점 1의 경우 거의 배타적으로 “노란 캐퍼 뒤(에)”라고 말하고(25명중 20명), 지점 3은 “노란 캐퍼 앞(에)”라고 표현한다(25명중 21명).

결국, 독일어에서는 관계점이 전후좌우의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화자를 중심으로 개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직시적 전략이 사용되고, 관계점이 전후좌우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시적 전략과 내재적 전략이 비슷하게 사용된다고 하겠다. 물론 이때에도 직

시적 전략이 약간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어에서는 관계점 자체에 전후좌우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 관계점을 관찰점으로 선택하는 경향

13) 여기서 제시된 수치는 Grabowski & Weiß(1996: 300)에서 인용한 것임. Grabowski & Weiß(1996: 299)에 의해서 제시된 완전한 문장은 “Lass mich bitte vor[hinter] dem gelben Käfer [dem Baum] aussteigen”이다. 여기서 ‘Relatum’의 위치에 캐퍼가 진행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매우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3.2. 좌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좌우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독일어의 links von/neben, rechts von/neben과 한국어의 왼쪽에, 오른쪽에가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7)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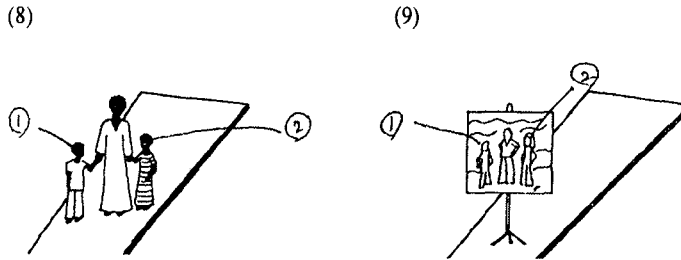


(7a)와 같은 상황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 화자 모두 “Die Frau steht rechts vom Baum”과 “그 여자는 나무 오른쪽에 서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보는 입장 즉 직시적 관점에서 관계점과 테마 개체와의 관계를 묘사한다. 그런데 전후좌우의 구분이 없는 ‘나무’와 달리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점 역할을 하는 (7b)와 같은 상황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일어 화자는 (7a)에서와 마찬가지로 “Die Frau steht rechts vom Kind”라고 표현함으로써 직시적인 관점을 일관성 있게 견지한다. 그런데 한국어 화자는 관계점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여자는 아이의 왼쪽에서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함으로써(25명중 5명), 내재적 전략에 따른 묘사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¹⁴⁾

이와 유사한 아래 그림 (8)과 같은 경우에도 “저 여자의 왼쪽에 있는 아이가 내 동생이다”고 말할 때 “화자가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14) 그림 (7b)를 “그 여자는 아이의 왼쪽에서 걸어오고 있다”라고 표현할 경우 선호도는 더 높아진다(25명중 10명).

대해 ①이라는 대답과 ②라는 대답이 (7b)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20:6). 그런데 여기서 왼쪽대신 왼편을 사용하면 ②라는 응답이 증가하여 결과는 13 대 13의 분포를 보인다. 즉 한국어에서 ... 편이라는 표현은 관계점이 관찰점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겠다.¹⁵⁾



그런데 그림이나 사진 등 영상매체 속의 개체가 관계점 역할을 하는 위와 (9)와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가 전후좌우의 구분 즉 내재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¹⁶⁾ 이 경우 독일어(Das Mädchen steht rechts von der Frau)에서는 한국어에서도 의심할 여지없이 “여자아이는 그 여자의 오른쪽에서 (서)있다”라고 묘사된다. 즉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가 이제 관찰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화자가 이 기능을 넘겨받아 자신의 입장에서 사진 속에 있는 테마 개체의 위치를 묘사한다. 이는 전후좌우의 구분을 지니고 있는 개체, 심지어는 ‘유정성 Belebtheitshierarchie’이 가장 높은 사람일지라도 사진이나 그림 속의 존재로 전략하게 되면 내재적 방향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¹⁷⁾

결국 독일어에서는 좌우 관계에서도 전후 관계에서처럼 화자가 관찰점이 되어 테마 개체의 위치를 묘사하는 직시적 전략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전후 관계와 좌우 관계 모두에서 직시적 전략이 사용되고 있고 관계점이 관찰점의 역할을 하는 내재적 전략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특히 관계점의 역할을 하는 개체의 전후좌우 구분 가능성이 내재적

15) 그림 (8)은 Hill(1982: 31)의 그림을 일부 수정하여 가져온 것임.

16) 그림 (9)는 Hill(1982: 30)의 그림을 일부 수정하여 가져온 것임.

17) ‘유정성’에 대해서는 Lehmann, Shin & Verhoeven(2000: 8), 구명철(2004: 177) 참조.

전략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가 내재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재적 전략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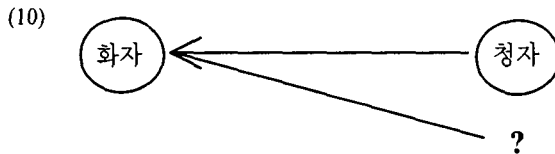
4. 개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

개체의 이동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 고려가 되는 것은 테마인 개체와 이 개체의 이동에 관여하는 장소이다(Klein(1990: 29) 참조). 개체가 이동해가는 장소는 관계점 역할을 하는 개체의 위치일 수도 있고 불특정한 임의의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런데 개체의 이동에 관한 표현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화자 및 청자 특히 화자의 위치이다. 테마 개체는 화자 쪽으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화자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이때 각각 청자의 위치와 제3의 장소가 출발점이나 도착점으로서의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개체가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개체의 이동을 크게 화자 쪽으로의 이동,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이동 그리고 제3의 장소로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 화자 쪽으로의 이동

테마 개체가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발점은 아래 그림으로 묘사된 바와 같이 청자의 위치일 수도 있고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¹⁸⁾



18) 테마 개체가 화자 쪽으로 이동할 때 출발점이 제3의 장소일 경우 청자는 자신의 독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화자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청자의 위치는 테마 개체의 이동을 표현하는 데 관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청자의 위치는 그림 (10)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청자 쪽에서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제3의 장소에서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독일어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Beim Telefongespräch*) Komm doch bei mir nach Haus!

(12) Hans kommt zu mir.

출발점이 청자 쪽이든 제3의 장소이든 관계없이 두 경우 모두 독일어에서는 *kommen*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동일한 상황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 지 (11)과 (12)에 대한 번역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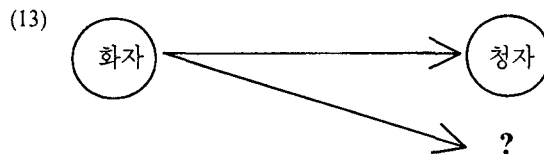
(11) (네가) 우리 집으로 와! (전화 통화)

(12) 한스가 내 쪽으로 오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화자 쪽으로의 이동은 출발점에 관계없이 독일어의 *kommen*에 어휘적으로 상응하는 *오다*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결국 화자 쪽으로의 이동의 경우, 화자가 관찰점이 됨으로써 이러한 이동은 ‘관찰점 쪽으로의 이동’ 즉 ‘접근이동’에 해당하여 출발점이나 언어적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kommen* 또는 *오다*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4.2. 화자의 (원래) 위치로부터 멀어지는 이동

테마 개체가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화자 쪽으로의 이동과 대칭된 모습을 보인다. 즉 화자가 출발점이 되고 청자의 위치나 제3의 장소가 도착점이 된다.



먼저 화자 쪽에서 청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독일어 예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14) (*Frau Schiffer*: Petra, das Frühstück ist fertig. ↔) Ja, ich komme.

(14)에서는 Petra가 청자인 Frau Schiffer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kommen 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동을 표현하고 있다. 즉 독일어에서는 자신의 원래 위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동이라도 이것이 청자 쪽으로의 이동이라면 청자 쪽에 초점이 놓임으로써 kommen 동사가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에서는 청자의 위치가 명시적이지 않을지라도 화자의 이동이 kommen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므로 화자가 가고자 하는 에어푸르트에 청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5) (*Beim Telefongespräch*) Ich komme morgen nach Erfurt.

(14)나 (15)와 동일한 경우 한국어에서는 ‘가다’만이 허용된다.

(14) (*Frau Schiffer*: 페트라, 아침식사 해라. ↔) 예, 갈게요.

(15) (*Beim Telefongespräch*) 내가 내일 에어푸르트로 갈게.

즉 한국어에서는 독일어에서와 달리 화자가 자신이 원래 점하던 위치로부터 멀어져서 청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오다’가 아니라 ‘가다’가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화자 쪽으로의 이동이든, 화자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동이든 관계없이 화자(의 원래위치)가 관찰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찰점인 화자를 기준으로 ‘접근이동’이면 오다가 사용되고, ‘이탈이동’이면 가다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어에서는 화자가 원래의 위치로부터 멀

19) 테마 개체가 화자의 위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로서 “Petra geht jetzt zu dir.”와 같은 전화 통화상의 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문장은 Petra가 화자와 함께 있다가 청자 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데, 이처럼 제 3자의 이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화 참여자 즉 화자와 청자 중 발화의 주체인 화자가 관찰점이 된다. 이때 Petra의 이동은 아래에서 보게 될 ‘이탈이동’에 해당하여 gehen 동사가 사용된다.

어져서 청자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청자가 관찰점이 됨으로써 ‘(관찰점 쪽으로의) 접근이동’에 해당하여 *kommen*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5)의 예에서 만일 전화통화의 상대방 즉 청자가 에어푸르트에 있지 않다면 이 경우는 화자가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상황이 됨으로써 청자가 관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화자가 관찰점이 된다. 이러한 경우는 관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탈이동’이 되어 다음과 같이 *kommen*이 아닌 *fahren* 또는 *gehen* 동사가 사용된다.²⁰⁾

(16) (*Beim Telefongespräch*) Ich fahre^(?)gehe morgen nach Erfurt.

그런데 현재는 에어푸르트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제3의 장소라 할지라도 문맥상 “청자가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에어푸르트에 갈 것”이라는 사실이 전제되면, 즉 (16)과 같은 화자의 언급에 앞서 “Ich nehme morgen an der Tagung in Erfurt teil”이라는 청자의 언급이 있었다면 화자는 “Ich komme auch morgen nach Erfurt”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 경우 얼핏 보기에는 예외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화자의 이동이 실제로는 ‘내일’ 이루어지고 이 시점에 청자는 이미 에어푸르트에 있을 것이므로 화자는 청자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즉 청자가 있게 되는 에어푸르트가 관찰점이 됨으로써 ‘접근이동’에 해당되어 *kommen* 동사가 사용된다.

한편, (16)과 같이 전화통화의 상대방 즉 청자가 에어푸르트에 있지 않는 경우든(= 제3의 장소로의 이동),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자가 내일 ‘에어푸르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할 것이 알려져 있는 경우든(= 청자 쪽으로의 이동), 한국어에서는 관찰점이 일관성 있게 화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 두 경우 모두 관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탈이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사 *가다*가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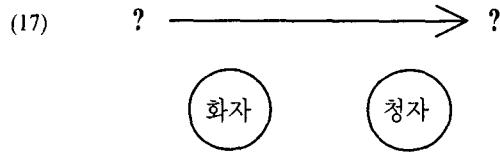
(16) (*Beim Telefongespräch*) 나는 내일 에어푸르트에 갈 거야.

20) 예문 (16)에서 *gehen*은 부자연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화자가 에어푸르트 근교에 있는 바이마르에서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결국 이동동사의 선택에는 관찰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관찰점 쪽으로의 이동 즉 ‘접근이동’에는 *kommen*이나 *오다*가 사용되고, 관찰점 쪽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동 즉 ‘이탈이동’에는 *gehen*이나 *가다*가 사용된다고 하겠다. 이동현상을 나타낼 때 언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일관성 있게 관찰점의 역할을 유지하는 반면, 독일어에서는 화자가 청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청자가 관찰점이 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화자가 관찰점이 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즉 화자 쪽으로의 이동이나 화자로부터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즉 청자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독일어에서 화자가 무표적인 관찰점이 된다.

4.3.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의 이동

테마 개체는 화자 및 청자의 위치와 관계없이 아래 그림에서처럼 제3의 장소에서 또 다른 제3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²¹⁾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독일어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²²⁾

- (18) (a) Petra geht jetzt nach Haus.
 (b) Petra fährt/geht morgen nach Erfurt.

21) 이 경우 청자가 화자와 같은 위치에 있든 그렇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22) 독일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kommen* 동사가 사용된다고 한다: *Die Löffel kommen in die obere Schublade; Kinder kommen mit sechs zur Schule.* 이 경우 얼핏 보기에는 테마 개체가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개체의 이동’이 아니라 ‘습관 *Gewohnheit*’이나 ‘규정 *Gesetz*’에 해당한다(Radden(1989: 233)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동 표현의 은유적 쓰임에 관련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8)의 예문들은 Petra가 ‘집’이나 ‘에어푸르트’로 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Petra의 집이나 에어푸르트는 현재 화자가 있는 위치는 아니므로 ‘집’이나 ‘에어푸르트’를 향하는 Petra의 이동은 화자 쪽에서 멀어지는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Petra의 이동이 청자 쪽으로 접근하는 이동도 아니다. 왜냐하면 (18)은 대화상황이나 객관적인 묘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일반적인 대화상황이라면 청자와 화자가 동일한 위치, 즉 Petra의 목적지인 집이나 에어푸르트가 아닌 제 3의 어떤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인 상황 묘사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청자와 관련된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 결국 (18)에서 Petra의 이동은 청자 쪽으로의 이동이 아니므로 관찰점은 화자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앞에서 Petra의 이동이 화자 쪽에서 멀어지는 이동에 해당한다고 했으므로 Petra의 이러한 이동은 관찰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동 즉 이탈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어에서 이탈이동은 gehen 동사에 의해 표현된다고 하였으므로 (18)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18)과 마찬가지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도 동사 *가다*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일관성 있게 화자가 관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Petra의 이동도 당연히 관찰자로부터의 ‘이탈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맺는말

본 논문에서는 비교언어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언어내적으로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던 공간표현을 독일어와 한국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다. 공간 속에서 개체의 위치 및 이동현상은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묘사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표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에 놓여있는 두 개체를 각각 ‘테마’와 ‘관계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개체의 위치 및 이동을 표현할 때, 공간에 대한 화자 및 청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Origo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Origo는 그 기능상 테마와 관계점을 메타 차원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Origo 대신 ‘관찰점’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구체적인 현상을 분석해 보았다.

공간표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개체의 동작성 여부에 따라 ‘개체의 상대적 위치’와 ‘개체의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어떤 개체의 위치는 관계점의 기능을 하는 개체와 전후좌우의 관계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나무’처럼 관계점의 기능을 하는 개체에 전후좌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독일어와 한국어 모두 직시적 전략을 따른다. 즉 화자가 관찰점이 되어 자신의 입장에서 전후좌우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계점이 전후좌우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독일어 화자는 직시적 전략에 약화 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직시적 전략에 따라 테마 개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여전히 선호한다. 반면, 한국어 화자는 전후좌우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점을 관찰점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개체의 이동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때 고려되는 것은 테마 개체와 이 개체가 이동해가는 장소이다. 개체의 이동에 관한 표현에서도 화자 및 청자 특히 화자의 위치는 관찰점 결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마 개체는 화자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화자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개체가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테마 개체가 화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자가 관찰점이 된다. 이러한 이동은 ‘관찰점 쪽으로의 이동’ 즉 ‘접근이동’에 해당하여 언어적 차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kommen* 또는 *오다*로 표현된다.

화자가 원래 위치로부터 멀어져서 청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독일어에서는 청자가 관찰점이 됨으로써 이 경우도 ‘(관찰점 쪽으로의) 접근이동’에 해당하여 *kommen*이 사용된다. 한국어에서는 독일어에서와 달리 화자가 자신이 원래 접하던 위치로부터 멀어져서 청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오다*가 아니라 *가다*가 사용된다. 즉 한국어에서는 화자 쪽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위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동에서도 화자의 원래위치가 관찰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이동은 관찰점으로부터의 ‘이탈이동’을 의미하므로 *가다*가 사용되는 것이다.

제3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테마 개체가 화자를 출발점으로 하지는 않지만 화자로부터 멀어져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화자로부터 멀어져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독일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화자가 관찰점이 되므로 이러한 이동은 관찰자로부터의 ‘이탈이동’에 해

당한다. 따라서 독일어에서는 *gehen* 동사가, 한국어서는 *가다*가 사용된다.

결국 독일어든 한국어든 관찰점 쪽으로의 이동 즉 ‘접근이동’에는 *kommen*이나 *오다*가 사용되고, 관찰점 쪽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동 즉 ‘이탈이동’에는 *gehen*이나 *가다*가 사용된다고 하겠다. 독일어와 한국어 이동 표현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일관성 있게 관찰점의 역할을 유지하는 반면, 독일어에서는 화자로부터 청자 쪽으로의 이동하는 경우에는 청자가 관찰점이 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화자가 관찰점이 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체의 상대적 위치든, 개체의 이동이든 *Origo*를 대신하는 관찰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독일어와 한국어의 공간표현을 적절히 기술하고 비교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개체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연구는 공간의 3차원적 속성을 고려하여 상하 관계까지 논의를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개체의 이동에 관한 연구도 ‘이동 동사’의 은유적 쓰임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³⁾

참고문헌

- 구명철 (2004): 소유관계와 존재동사-존재동사에 의한 소유관계의 표현, 『독어 교육』 제29집, 173-195.
- 신수송 (2003): 독일어의 공간표현에 관한 의미론적 기술, 『독일문학』 제88집, 335-354.
- 이수련 (2001): 『한국어와 인지』.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임해원 (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서울: 한신문화사.
- Baumgärtner, K. & Wunderlich, D. (1969): Ansatz zu einer Semantik des deutschen Tempussystems. In: *Wirkendes Wort*, Beiheft 20: 23-49.
- Elst, G.v.d. & Habermann, M. (1997): *Syntaktische Analyse*. Erlangen & Jena: Verlag Palm & Enke.
- Fauconnier, G. (1994): *Mental Spa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bowski, J. & Weiß, P. (1996): Das Präpositioneninventar als Determinante des Verstehens von Raumpräpositionen: *vor* und *hinter* in fünf Sprachen. In: Lang,

23) 예를 들어, 한국어 공간표현의 은유적 쓰임에 대한 연구로는 임해원(2004)이 있다.

- E. & Zifonun, G. (Hrsg.): *Deutsch - typologisch*. Berlin & New York: de Gruyter; 289-311.
- Habel, C., Herweg, M. & Rehkämper, K. (Hrsg.) (1989): *Raumkonzepte in Verstehensprozessen*. Tübingen.
- Habel, C. & von Stutterheim, C. (Hrsg.) (2000): *Räumliche Konzepte und sprachliche Strukturen*. Tübingen: Niemeyer.
- Heine, B. (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errmann, Th. (1990): Vor, hinter, rechts und links: Das 6H-Modell. Psychologische Studien zum sprachlichen Lokalisieren. In: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78: 117-140.
- Herweg, M. (1989): Ansätze zu einer Beschreibung topologischer Präpositionen. In: Habel, C., Herweg, M. & Rehkämper, K. (Hrsg.): *Raumkonzepte in Verstehensprozessen*. Tübingen; 99-127.
- Hill, C. (1982): Up/down, front/back, left/right. A contrastive study of Hausa and English. In: Wissenborn, J & Klein, W. (Hrsg.): *Here and there. Cross-linguistic studies in deixis and demonstration*. Amsterdam; 13-42.
- Kessler, K. (1999): Ein konnektionistisches Modell der Interpretation von "vor", "hinter", "links" und "rechts". In: Rickheit, G. (Hrsg.): *Richtungen im Raum*.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167-202.
- Klein, W. (Hrsg.) (1990): *Sprache und Raum*. Göttingen ('=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78).
- Klein, W. (1991): Raumausdrücke. In: *Linguistische Berichte* 132: 77-114.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angacker, R.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e, D. (2001): *Cognitive 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hmann, C. (1991): Relationality and the grammatical operation. In: Seiler, H. & Premper, W. (Hrsg.): *Partizipation*. Tübingen: Narr; 13-28.
- Lehmann, C., Shin, Y.-M. & Verhoeven, E. (2000): *Direkte und indirekte Partizipation*. München & Newcastle: Lincom Europa.
- Radden, G. (1989): Das Bewegungskonzept: TO COME UND TO GO. In: Habel,

- C., Herweg, M. & Rehkämper, K. (Hrsg.): *Raumkonzepte in Verstehensprozessen*. Tübingen; 228-248.
- Schwarz, M. (1996): *Einführung in die kognitive Grammatik*. Tübingen und Basel: Francke Verlag.
- Sichelschmidt, L. (1989): Wo *hier dort* ist — primär- und sekundärdeiktische Raumreferenz. In: Habel, C., Herweg, M. & Rehkämper, K. (Hrsg.): *Raumkonzepte in Verstehensprozessen*. Tübingen; 339-359.

Zusammenfassung

Ausdrücke für die relationale Stelle und Bewegung der Gegenstände

— Lokale Ausdrück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

Koo, Myung-Chul(Seoul National Univ.)

Die relationale Stelle und Bewegung der Gegenstände lassen sich mit Hilfe anderer Gegenstände beschreiben, die in den diesbezüglichen Untersuchungen jeweils als 'Thema' und 'Relatum' gekennzeichnet wurden. Neben dem Thema und dem Relatum ist zur Beschreibung der Raumausdrücke ein dritter Begriff 'Origo', bzw. 'Betrachtungspunkt', notwendig, weil dabei der subjektive Aspekt des Sprechers bzw. Hörers u.a. eine wichtige Rolle spielt.

Die Stelle eines Gegenstandes ist durch einen Bezug zu seinem Relatum auszudrücken. Wenn das Relatum keine intrinsische Orientierung kennt, wird im Deutschen und auch im Koreanischen eine deiktische Strategie verwendet, in der sich der Sprecher aus seiner Sicht zwischen *rechts (von/neben)* und *links (von/neben)*, bzw. *vor* und *hinter* entscheidet. Falls das Relatum eine intrinsische Orientierung kennt, wird im Deutschen die deiktische Strategie zwar bevorzugt, ist aber nicht dominant, In einem solchen Fall gilt im Koreanischen sowohl der Sprecher wie auch das Relatum als Betrachtungspunkt.

Bei der Beschreibung der Bewegung sind nicht nur der betreffende Gegenstand (= das Thema) und der Zielort (= das Relatum), sondern auch die Stelle des Sprechers, eventuell auch des Hörers zu berücksichtigen. Im Koreanischen spielt der Sprecher konsistent die Rolle des Betrachtungspunktes. Auch im Deutschen fungiert normalerweise der Sprecher als Betrachtungspunkt; aber im Falle der Bewegung zum Hörer fungiert der

Hörer als Betrachtspunkt.

Die Bewegung zum Betrachtspunkt wird durch ein Annäherungsverb wie *kommen* und *oda* (오다) bezeichnet, während die vom Betrachtspunkt wegführende Bewegung durch ein Entfernungsverb wie *gehen* und *gada* (가다) bezeichnet wird. In diesem Zusammenhang wird die Bewegung zum Sprecher durch *kommen* und *oda* ausgedrückt. Die Bewegung zum Hörer wird im Koreanischen auch durch *gada* ausgedrückt, da es sich hierbei um die vom Betrachtspunkt wegführende Bewegung handelt; in einem solchen Fall wird aber im Deutschen *kommen* gebraucht, da der Hörer als Betrachtspunkt fungiert und es sich hier um die Bewegung zum Betrachtspunkt handelt.

[검색어] 상대적 위치, 이동, 테마, 관계점, 관찰점
relationale Stelle, Bewegung, Thema, Relatum, Betrachtspunkt

구명철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koomc@snu.ac.kr

논문 접수일: 2004. 10. 22

논문 심사일: 2004. 11. 25